

## 전기전자/IT HW

###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: 긍정적인 채널 재고 소진 지속

#### ● 전기전자/IT부품

Analyst 양승수

02. 6454-4875

seungsoo.yang@meritz.co.kr

- CAICT 중국 2월 핸드셋 출하량 약 1,966만대(-27.8% MoM, +37.9% YoY), 스마트폰 출하량 약 1,861만대(-24.1% MoM, +32.5% YoY) 발표

- 이구환신 정책과 춘절 수요를 대비한 선제적 선제적 풀인 이후, 2달 연속 전월 대비 출하량이 감소세를 기록 중

- 2월 기준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-Local 핸드셋 출하량 264만대(-40.0% MoM, +9.2% YoY) 기록. 전체 출하량 내 점유율은 13.4%로 전년 동기(16.2%) 대비 하락

- Apple은 이구환신 정책 수혜 제한 및 로컬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점유율 하락세 지속. 2월말 출시된 iPhone 16E를 통한 3월 반등 여부가 향후 관건

- 2월 Local 브랜드 핸드셋 출하량은 1,702만 대(-25.5% MoM, +43.8% YoY)를 기록. 전체 출하량 내 점유율은 86.6%(vs 24년 2월 83.1%) 달성

- 중국 세트업체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고 조정을 위해 높은 출하량을 유지해왔으며, 이구환신 정책 시행을 앞두고 출하량을 재차 확대. 이 과정에서 유통채널의 재고 부담은 증가했지만, 세트업체들의 내부 재고는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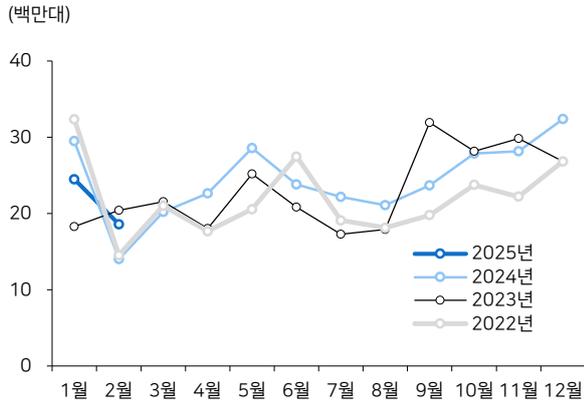
- 실제로 쉐컴, 미디어텍, 마이크론, 무라타 등 주요 부품사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'수요 반등 시 고객사들의 주문 기조가 평년 대비 강할 수 있다'고 언급했으며, 이는 고객사들의 현재 재고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

- 긍정적인 점은 1~2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출하량을 상회하며, 유통 채널 내 재고가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점(그림8). 다만 최근 1분기 고객사들의 주문 기조가 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(그림11,12), 이구환신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 약화

- 그러나 다운스트림 재고 정상화가 선행된 만큼, 2~3분기 신모델 출시 전후로는 평년보다 강한 부품 빌드업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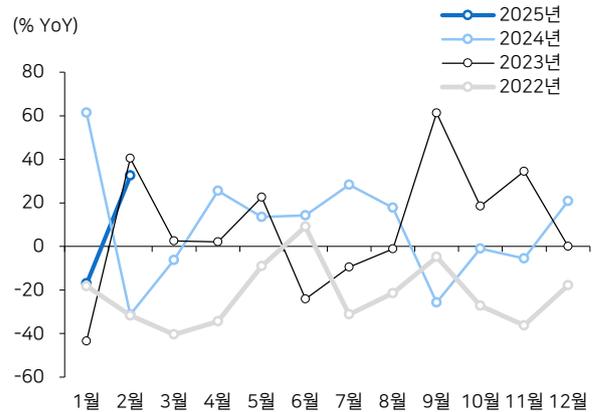
- 이는 관련 부품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향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하며, 당사는 이구환신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기와 PI점단소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

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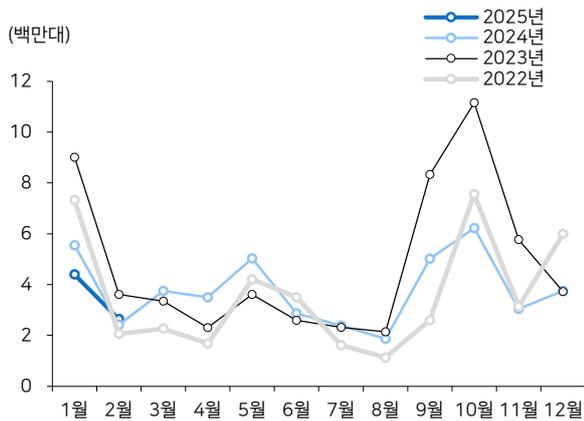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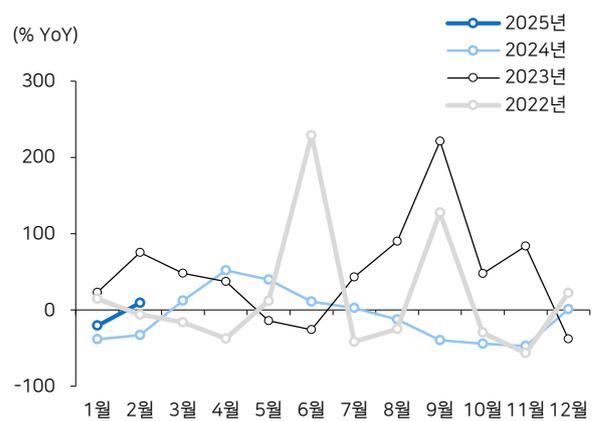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중국 Non-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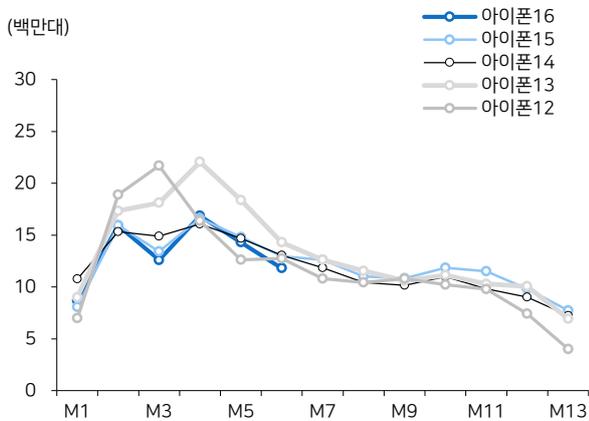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중국 Non-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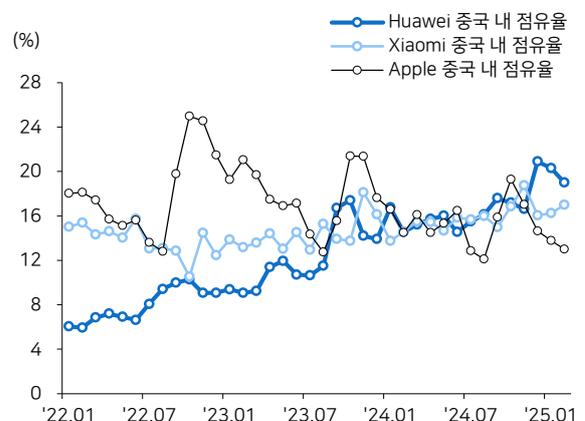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아이폰 모델별 판매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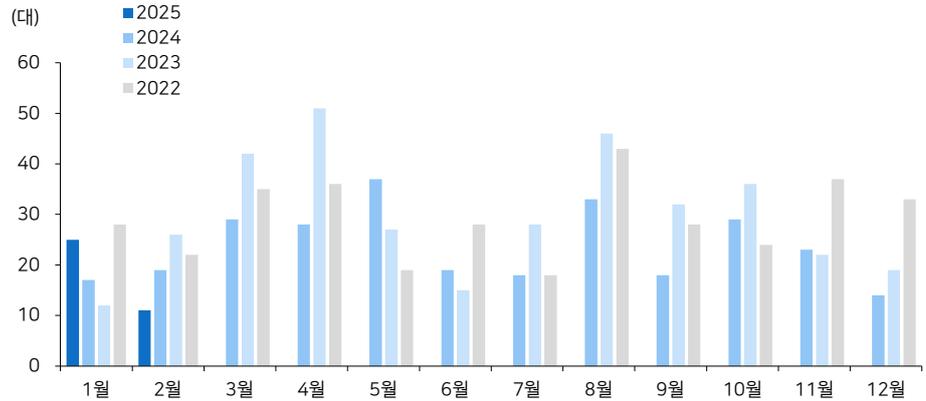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중국 내 애플, Huawei, Xiaomi 판매량 점유율 비교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연도별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대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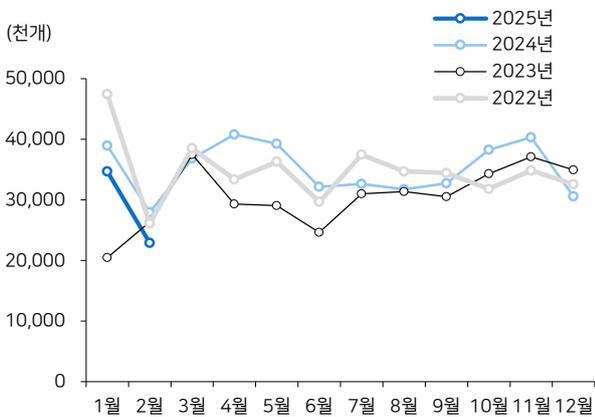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/판매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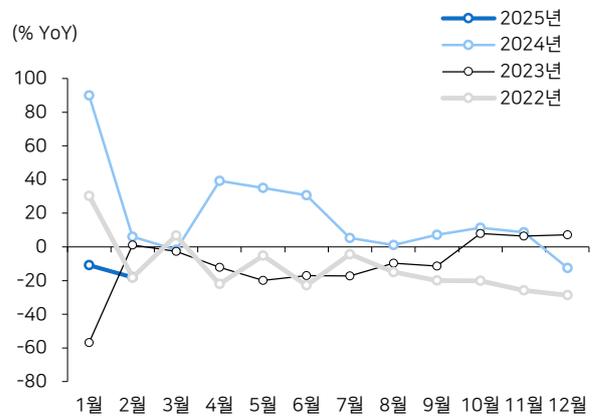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Q Tech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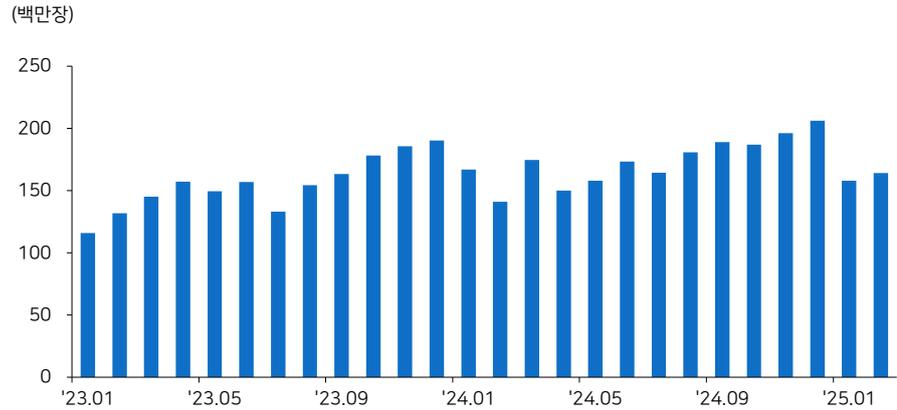
자료: Q Tech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Q Tech 카메라모듈 출하량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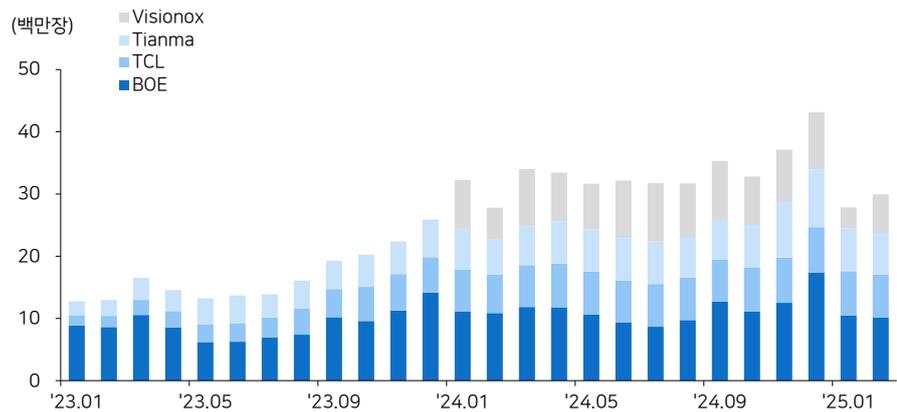
자료: Q Tech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월별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추이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OLED 출하 동향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